

교사용
독서활동지

독자 대상
초등 중학년 이상

엘도브

이름:



당근의 여왕

고수산나 글 | 임종철 그림 | 엘도브



#당근마켓 #중고거래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과 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아이들이 마주치는 현실이 솔직하고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요.

목표

1. '중고마켓' 거래 과정을 안다
2. 설득하는 말하기 방법을 안다.
3. 자원 순환의 의미를 안다.



관련 교과

- | | | |
|----|------|---------------------|
| 국어 | 3-1. |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
| | | 8. 의견이 있어요. |
| | 4-1. | 독서, 질문을 만들며 책을 읽어요. |
| | | 6. 회의를 해요 |
| | | 8. 이런 제안 있어요. |
| 사회 | 4-2. | 2. 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 |
| 과학 | 5-2. | 2. 환경 오염과 생태계 보전 |

초등학교 환경 교과서, "환경"(3학년, 4학년)

1. 책 표지 보며 이야기 나누기

*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당근을 잘 먹는 아이의 이야기? /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는 아이의 이야기?

* 표지에 등장하는 그림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고양이, 왕관, 연예인 포토 카드, 공책, 강아지가 그려진 상자, 우산, 머리핀, 휴대폰, 아이들, 파란 하트, 주황색 고리

*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 4명이 휴대폰을 이용해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표지 그림에 나온 물건들을 사고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 아나바다 장터(프리마켓, 바자회 등이 이름)에서 물건을 사거나 판 경험을 말해보세요.

학교(또는 구청)에서 열었던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보았어요.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저의 물건이나 엄마 아빠가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 등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보고 좋아하며 사가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는 사람에게는 신이 나서 덤을 주기도 했어요. 제 물건들이 다시 잘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어떤 물건을 팔았나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산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건 없었나요?

- 인형과 장난감, 엄마를 졸라서 사놓고 몇 번 사용하지 않은 가방,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신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 엄마가 직접 뜯은 수세미 같은 걸 팔았어요.

- 손으로 직접 뜯은 예쁜 손가방을 샀을 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작은 수첩도 샀는데, 여기에도 메모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잘 까먹거든요.

- 멋진 그림이 있는 필통을 샀는데, 이미 집에 필통이 너무 많은데도 사고 말았어요. 제 휴대폰과는 맞지도 않은 휴대폰 케이스를 예쁘다는 이유로 덤석 사버렸어요. 집에 와서 후회가 많이 되었어요.

2. 선생님이 들려주는 작가 이야기

이 책을 쓴 고수산나 작가님은 1998년부터 동화작가로 활동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와 6학년 도덕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작가님의 동화가 실렸어요. 그동안 쓴 책으로 『콩 한 쪽도 나누어요』, 『유물 도둑을 찾아라』, 『수상한 선글라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생』, 『동물원 친구들이 이상해』, 『고수산나 동화선집』, 『우리 반에 슈퍼히어로가 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40여 권이 넘는 책을 지었어요.

1. 책에 등장하는 낱말 10개를 찾아보세요.

거	햄	스	터	임	흐	고	함	결	장
온	만	등	꾸	지	람	공	엄	소	대
도	시	왕	여	임	후	채	선	뿔	브
깨	끝	편	설	책	엘	팅	예	작	나
지	의	지	기	당	과	방	벌	감	이
점	활	아	수	근	동	친	중	고	곶
마	연	종	음	마	국	감	사	니	림
정	합	절	업	켓	기	명	산	고	다
구	그	물	배	도	철	들	상	양	현
아	이	스	크	림	말	빠	락	이	허

2. 다음 설명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해 보세요.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막무가내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고집이 우라지게 세거나 무조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정판
부수를 제한하여 발간하는 출판물이나 음반. 독자가 없어 수요가 적은 책이나 음반을 출판할 때에 한다.		고수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		피규어
유명 인사나 영화·만화의 등장인물을 본떠 플라스틱, 금속, 밀랍 따위로 제작한 물건. 실제 크기 또는 축소한 크기로 만든다.		별별
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반도 서쪽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수도는 네피도이다.		진작
좀 더 일찍이, 주로 기대나 생각대로 잘되지 않은 지나간 사실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원망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에 쓴다.		미안마
믿음성이 있다.		흥정
1. 물건을 사고판. 2.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하여 품질이나 가격 따위를 의논함		미답다

3. '햇'이 들어간 낱말을 찾아보세요.

- 햇: 1.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그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어두음이 예사소리인 일부 명사 앞에는 '햇감자/햇과일/햇병아리/햇비둘기'와 같이 '햇-'이 쓰이고,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일부 명사 앞에는 '해숙/해콩/해팥'과 같이 '해-'가 쓰입니다

햇대지 햇당근 햇곡식 햇과일 햇병아리 햇비둘기 해숙 해콩 해팥 햇별 햇살 햇밤

4. 아래 문장에서 '의인법'을 사용한 표현을 찾아보세요.

모두가 기분 좋게 교문을 나섰다. 교문 안쪽 은행나무 밑동부터 연두색 새잎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햇당근이** 시작 된 날, 새끼 은행잎도 바람에 손을 흔들며 주었다.

* 의인법은 '나무가 춤을 춘다'처럼 사람이 아닌 동물, 식물, 사물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의인법을 사용하면 읽는 이가 대상을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네이버 어린이 백과)

새끼 은행잎도 바람에 손을 흔들며 주었다.

5. '당근 거지'라 불리는 용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근 거지는 당근에 올라오는 나눔 물건들을 싹쓸이해 가게나 심지어 돈을 받고 도파는 사람들을 낮게 부르는 비속어다.
 출처 : 뉴스저널리즘

찬성: 나눔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므로, 나눔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싹쓸이하거나 그 물건을 되판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다.

반대: 꼭 필요한 사람이 잘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나눔을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악용해서 물건을 받아 되판다는 건 나쁜 일인 것 같다.

* 개근 거지: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아이들을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로 취급하는 일종의 혐오 표현이다.

1. 중고 물품 거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세요.(짝을 이뤄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정리하고 발표해요.)

장점	단점
띠부실 같은 희귀한 제품을 살 수 있다.	부실한 물건이나 불량품을 살 수도 있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필요한 물건 싸게 사기	구매 희망자의 질문이 많은 경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환경 보호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있다.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상품 구입	이상한 구매자나 판매자를 만나 속상할 수 있다.

2. 윤아를 ‘당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잘 사고판다. 물건을 어떻게 찍어 올리고, 제품 설명을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당근마켓 이용을 반대할 때도 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하고 설득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왔다.



3. 윤아가 제안한 당근 이용 방법은? 그 외에 추가할 사안이 있나요?

햇당근 클럽 규칙

1. 거래할 때는 반드시 회원 세 명 이상이 함께해야 한다.
2. 거래 사진을 올릴 때나 물건을 구매할 때, 회원들이 동의해야 한다.
3. 거래 장소는 학교 앞, 아파트 편의점 앞, 놀이터로 한다.
4. 거래가 끝나면 당근 일기를 작성해서 함께 소감을 나눈다.
5. 학교생활이나 학원 수업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6. 햇당근 클럽의 활동은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한다.

• 당근마켓 앱을 이용하는 시간을 정한다.

• 3번 이상 규칙을 어기면 클럽에서 탈퇴한다.

1. 토론 '당근과 관련한 의견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요?' 근거를 들어 의견을 밝혀보세요.

이준이는 그런 선재가 이상했다.
 "선재야, 나는 띠부실 사려고 그러지만 너는 왜 그렇게 당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도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당근으로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선재의 말에 이준이는 깜짝 놀랐다.
 "돈?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20)

선재 의견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요구하면 된다.
이준 의견	초등학생도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다.

선재 의견: 초등학생은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내야 한다. 돈을 벌려고 할 때면 위험한 일들에 처하기 쉽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속이는 경우도 많을 거고, 위험한 환경에 어린이를 내몰기도 할 것 같다.

이준 의견: 초등학생이 돈을 버는 데 꼭 위험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돈을 벌 수도 있다. 쓰지 않는 물건으로 돈을 버는 것이니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 스스로 돈을 벌면 돈을 더 아껴 쓸 수 있을 것 같다.

2. 초등학생도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높아요.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돈'보다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을지 말해보세요.(다음 기사를 참고해요.)

경제관념이 있어야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하더라도 이런 경험이 쌓여서 스스로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가 우선이고 경제 공부는 어른이 되어서(대학에 가서) 체계적으로 해도 된다. 또 위험하기도 하다.

용돈은 저금통에? 요샌 '앱'으로 받아 관리해요/요즘 아이들 新용돈 관리법

출처 : 뉴스저널리즘

종교 거래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제 원리

정영동 기자, 2024.03.18 생글생글 840호

주식투자, 11살에 시작하면 5만원으로 5억어치 교훈 얻겠쥬 [학교 대신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 2022-07-10

3. 아이들이 햇당근을 결성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행동을 꼽아 보세요. 당근 일기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규칙을 만든 것, 당근 일기를 쓴 것, 함께 계획한 것.)

- 결성 과정: 이준이가 피부실을 사지 못해 애를 먹다가 진새를 통해 ‘당근마켓’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 윤아가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는 ‘당근의 여왕’이라는 말을 듣고 이준이는 윤아에게 피부실을 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다.

같은 반 친구 선재와 현서, 이준이가 윤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윤아는 거절한다. 그러나 선재의 이야기를 들은 윤아는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은 햇당근 클럽을 결성한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하자, 윤아가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친구들과 함께 ‘거래할 때는 세 명 이상 함께하는, 당근 일기를 작성한다, 기간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햇당근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설득해 마침내 당근마켓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 가장 마음에 드는 행동: 부모님께 막무가내로 떼쓰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서 설득한 점.

- 당근 일기를 쓴 이유: 부모님들이 언제든 당근 일기를 보면 햇당근 아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햇당근 아이들도 거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다음은 당근마켓에 팔 물건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59~)

청바지, 티셔츠, 스티커, 포토 카드, 등산용품, 손목 보호대, 운동 기구, 등산용품, 축구화, 게임기, 인덱션, 색연필 세트, 화장품, 휴대폰 케이스, 자전거, 자동차, 아파트,

작아서 못 입는 물건, 필요 없어진 물건, 취향이 변해서 지금은 안 쓰는 물건, 여러 개 있는 물건, 오래 되어 산지도 잊은 물건 등이 있다.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고 팔 정도로 없는 물건이 없다. 그동안 신뢰가 쌓인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사고, 또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고 거래를 통해 교환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로 버려질 물건이 될 것이다. 등

5. 중고 거래를 하면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합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정확한 상품 소개(여러 각도 사진, 구체적인 정보(초등학교 고학년 겨울에 입기 좋은 청바지)
2. 매너 온도를 올려주는 후기(짧은 글 "제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손 편지(햄스터는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주세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줘야 해요. 한 겨울에는 베란다에 내놓지 마세요.)
4. 기타

- 1번: 일단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1번처럼 정확하게 상품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 2번: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매너 온도를 많이 참고한다고 들었다. 좋은 물건을 내놓고 사고 나서도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안심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 3번: 정성이 가득 담긴 손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방법 같은 걸 적어줄 수 있으니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 4번: 직접 만나서 착용해 보거나 사용해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도 판매에 도움이 된다. 물건이 자기 몸에 잘 맞는지, 작동을 잘하는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니까.

6. 학교 알뜰바자회(아나바다시장, 벼룩시장, 플리마켓)를 연다면 어떤 물건이 가장 인기가 높을까요?
물건 10개를 선택하고 가격을 정한 후 판매 수입을 예상해 보세요.
판매 수익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바자회: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 아나바다: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물자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다'를 줄여 만든 이름이다.

* 벼룩 시장: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안 쓰는 물건을 공원 등에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 등을 하는 시민 운동의 하나.

- 물건: 포토카드, 가방, 장난감, 새 공책, 크레파스, 악기, 머리띠나 머리핀, 재미있는 책, 장갑, 스티커
- 판매수익: 3만 원
-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사거나 두었다가 읽고 싶은 책을 사고 싶다. / 생일 선물을 사는 데 보태고 싶다. / 친구들과 놀이동산 갈 때 사용하고 싶다.